
The Eco-Theological Rediscovery of Repentance and Penance: The Emergent Conversion of Excretion and Revival*

Namhui Ki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In Catholicism, confession starts with repenting a person's bad thoughts, words, and behaviors. Confessing is then to be finalized as practical atonement.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y that the process of confession may be connected to ecological repentance, self-confession, and penance. The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confession possesses a practical meaning that cannot be overlooked when materializing the concept of "ecological repentance," which has become widely known thanks to Pope Francis' encyclical *Laudato si'*. By examining *Laudato si'* from a theolog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 this paper reinterprets confession and repentance as processes of disposal of craving [excretion] and revival. Furthermore, it explores whether the concept of penance linked to confession can be understood as ecological penance from an eco-theological perspective. As a practical example, the paper connects atoning behavior to the Catholic tradition of pilgrimage and suggests that walking can be viewed as ecological penance. The paper thus imagines a "pilgrimage mileage" application based on a compensation-oriented reward system. Through this app, walking acquires meaning as ecological penance, which creatively revives disposal [excretion], and the number of steps taken by the walker is linked to a donation.

Key words: Christianity, confession, ecological penance, ecological repentance, excretion, pilgrimage, walking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Research Fund, 2020.

Received November 22, 2021 **Revised** December 10, 2021 **Accepted** December 15, 2021

Author: Namhui Kim, Professor, Catholic Colleg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namikisb@catholic.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회개와 보속의 생태신학적 재발견과 새로운 상상: 배설과 되살림의 창발적 변환*

김남희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요 약

그리스도교에서 고해성사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한 회개에서 시작되며, 고백을 거쳐 실천적 속죄 행위인 보속으로 마무리된다. 본고는 이 일련의 고해성사 과정이 생태적 회개, 생태적 자기 고백, 그리고 생태적 보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를 통해 알려진 ‘생태적 회개’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 고해성사는 간과될 수 없는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로써 회개와 고해성사가 욕망의 버림[배설]과 되살림의 과정이었음을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신학적, 역사적 관점을 통해 살펴보고 재해석하였다. 나아가 고해성사의 보속 개념을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생태적 보속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예로 실천적 속죄 행위인 보속을 가톨릭의 또 다른 전통인 성지순례와 연결시키고, 순례 여정에서 중요한 행위인 ‘걷기’를 생태적 보속으로 제안하였다. ‘보상형 걷기 리워드 앱’ 기반 ‘걷기 순례 마일리지’앱이 개발되어 순례에서 걷기 행위가 버림[배설]을 창조적으로 되살리는 생태적 보속의 의미를 갖는 동시에 자신의 걸음 수가 기부로까지 이어지는 상상을 해 보았다.

주제어 : 그리스도교, 고해성사, 배설, 생태적 회개, 생태적 보속, 성지순례, 걷기

* 본 연구는 2020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들어가며: 버림의 미덕을 재발견하다

“난 더러운 똥인데,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아무짝에도 쓸 수 없을 텐데...”

권정생, 『강아지똥』 중에서

권정생의 『강아지똥』은 아동문학의 새로운 장을 연 그림책으로 평가받는다. 『강아지똥』에는 그 흔한 왕자와 공주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왕자와 공주가 사는 환상적인 세계도 그려지지 않고, 왕자와 공주의 결혼이라는 낭만적인 결말도 없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데 없다고 여겨온 한 사물의 이야기, 강아지가 싸 놓은 ‘똥’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동문학 평론가인 이재복은 『강아지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지금까지 아동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 준다면서 어딘지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의 세계만을 보여 주었는데, 권정생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비록 어둡고 추운 곳이지만 그 곳에도 왕자나 공주 못지 않게 따뜻한 영혼을 간직한 수많은 존재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권정생, 2006).¹⁾

『강아지똥』은 국가와 사회가 경제 성장에만 몰두하고, 개인도 그 발전 계획 속에서 과도한 경쟁을 감수해내야만 했던 1990년대에 출판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강아지똥』은 단순히 동화를 넘어 작가의 시대적 혜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난 더러운 똥인데,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아무짝에도 쓸 수 없을 텐데……”(권정생, 2006). 강아지똥의 독백은 ‘쓸모있음’과 ‘쓸모없음’을 구분하면서 유용성만을 중시해 온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한다. 또한 긴 겨울을 참고 기다린 끝에 민들레의 거름이 되고, 결국 무엇인가 착하게[귀하게] 쓰이고 싶다는 꿈을 이룬 강아지똥의 이야기는 ‘배설과 그 배설물인 똥’에 대해 다음 세 가지의 화두를 던지고 있다.

첫 번째는 ‘쓸모있음의 쓸모없음’[有用之無用]이다. 배설은 사전적으로 ‘한 생명체가 자신의 몸 안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얻은 후 생긴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뜻한다. 이 사전적 의미에서 드러나고 있는 바와 같이, 배설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생리작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똥의 독백처럼, 배설물이 더 이상 거름으로 쓰이지 않게 되면서 무용지물(無用之物)로, 심지어 ‘더러운 것’으로 낙인찍혀왔다.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수세식 화장실이 보편화되면서 배설물이 노폐물, 혐오의 폐기물로 인식되었고, 심지어 오물 처리 비용으로 인해

1) 권정생의 『강아지똥』은 약 30쪽 분량의 단편 동화이자 그림책이다. 길벗어린이 출판사에서 발행한 『강아지똥』에는 쪽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본고에서는 쪽수 인용을 부득이 생략했다. 이재복의 평론은 『강아지똥』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돈이 드는 쓰레기’로 취급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배설과 그 배설물인 똥’에 대한 반성을 통해 쓸모없다고 여긴 것에 대해 재발견을 할 줄 아는 안목이 요청된다.

두 번째는 ‘쓸모없음의 쓸모있음’[無用之用]과 선한 영향력이다. 동화 『강아지똥』에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강아지똥이 민들레의 거름이 되어 아름다운 꽃으로 변용된 것처럼, 인간의 배설물이 기술을 이용해 바이오가스로 전환되는 것은 쓸모없다고 여겨지던 배설물의 선한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 무용한 배설물이 유용한 바이오가스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강아지똥』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민들레의 퇴비가 되기 위해 강아지똥이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 죽음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체가 또 다른 생명체의 탄생으로 이어지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죽음과 희생의 과정은 곧 생명의 순환성을 내포한다. 나아가 이 생명의 순환성은 곧 쓸모없음의 되살림이다. 따라서 쓸데없다고 치부되는 어떤 대상을 선한 영향[되살림]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그 대상의 활용과 영향에 대한 무한하고 새로운 생태학적 상상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강아지똥』은 생태 위기 속에서 종교의 역할을 재고하게 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교회 뒤의 5평짜리 흙집에서 살았던 권정생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그의 시선은 늘 보잘것없고 힘없는 존재를 향해 있었다.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에 대한 관심과 가난함에 대한 통찰은 곧 그리스도교의 영성과도 맞닿아 있다. 그리스도교가 가난하고 소외된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어느 누구도 쓸모없는 존재가 아님을 역설해 온 이유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예수가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을 비판하면서 군중들에게 당부한 가르침[마르코, 7,14-23]에 잘 나타나 있다. “너희는 내 말을 새겨 들어라. 무엇이든지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 참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안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당시 예수의 생각은 상당히 파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정결예식을 통해 깨끗함을 지향하고 더러운 것을 피했던 바리새이파인들에게 예수는 사물 그 자체에는 깨끗함과 더러움의 구분은 없다고 주창한 것이다. 오히려 그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온갖 욕망이 더러움의 근원이므로, 스스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성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교는 정결예식을 강조하는 종교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버리는 미덕, 자신의 욕망에 대한 회개를 강조하는 종교라 할 수 있다.

배설이나 배설물에 대해서도 불결한 대상이나 행위보다는 오히려 겸허함의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교황의 의자인 ‘Sella stercoraria’가 있다. 중세시대 교황 착좌식 때 사용된 이 의자의 상판에는 구멍이 나 있어서 소위 ‘배변 의자’라고 불렸다고 한다. 교황이

이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시편 113장 7절인 “약한 자를 티끌에서 끌어 올리시고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끌어 내시어” 구절이 울려 퍼졌다고 한다. 교황이 배변 의자에 앉은 예식은 그에게 ‘그가 티끌과 거름더미에서 일어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황 또한 우리 인간 본성의 결점에 종속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블루메, 2005: 101-102). 또한 이 착좌식은 가톨릭의 최고 수장이 변기 의자에 앉음으로써 자신이 늘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게 하고, 버림과 겸손의 미덕을 상기시키고자 한 예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가톨릭 전통에는 이 버림[배설]의 미덕을 상기시켜주는 또 다른 종교 의례가 있다. 바로 고해성사이다. 고해성사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대한 회개에서 시작되며, 고백을 거쳐 실천적 속죄 행위인 보속으로 마무리된다. 따라서 본고는 이 일련의 고해성사 과정이 생태적 회개, 생태적 자기 고백, 그리고 생태적 보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생태적 반성이 종교적 의례와 실천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편 고해성사에 대한 생태신학적 재발견이 될 수도 있다. 나아가 고해성사의 실천적 속죄 행위인 보속을 성지순례와 연결지음으로써 그리스도교의 영성이 생태 위기 속에서 어떻게 되살림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새롭게 상상하며 생태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회개와 고해성사: 버림[배설]과 되살림의 과정

1. 생태 위기에 대한 반성과 생태적 회개

1970년대부터 서구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생태 위기 문제는 1990년대 들어와서야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²⁾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1999년 생태 전문가들은 당시 생태적 관심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사회를 비판하면서, 인간 존재 근거에 대한 빠져진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삶과 문화는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다(김종철, 1999: 5). 다시 2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팬데믹은 인간 삶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즉 생태 위기에

2) 서구에서는 1970년 영국 BBC가 생태학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방송하면서, 그리고 3년 뒤 1973년 노르웨이에서 아르네 네스(Arne Naess)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생태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1989년 ‘한살림모임’ 창립총회에서 「한살림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2년 뒤 1991년 「녹색평론」이 창간되었다. 가톨릭의 경우, 1990년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환경자문위원단’을 구성하였으며, 같은 해 대구대교구에서는 ‘푸른평화’를 발족하였다. 1993년에는 전국환경사제모임이 발족되고, 가톨릭환경연구소가 설립하였다. 이런 가운데 2001년 8월에 주교회의 차원에서 생태 사도적 영역을 총괄하는 공식 기구로서 정의평화위원회, 평신도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가톨릭환경연대가 창립되었다.

대한 반성과 인간 존재 근거에 대한 성찰은 또다시 요청되고 있다.

인간 존재 근거에 대한 빠져린 성찰을 근원적으로 다시금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반포한 회칙 『찬미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Laudato Si')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에 ‘찬미받으소서 특별 주년’을 선포했다는 점³⁾을 주목하면서, 이 회칙에 내포된 생태학적 의미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회칙에서 ‘배설’과 ‘버림의 미덕’에 대한 새로운 생태학적 상상의 여지를 찾을 수 있다.

『찬미받으소서』는 교회가 발표하는 여러 문헌들 가운데 회칙(Encyclica)에 해당된다. 회칙은 헌장(Costituto), 교황령(Costituto Apostolica), 교령(Decretum)과 비교하여 자구적 의미의 법적 구속력은 낮으나 수신인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문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순회시키다’, ‘돌리다’라는 단어의 뜻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회칙은 회람하여 읽는 편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이”(3항)⁴⁾ 그리고 “선지의 모든 사람”(62항)이 회람하기를 긴급히 권유하는 교회 문헌이자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각국 정부, 정치인, 국제기구, 전 세계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단체 등에서도 회자되었다(장동훈, 2018: 192-193).

교회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이’에게 『찬미받으소서』 회칙을 회람시키면서 동시에 기대하는 바는 이 회칙의 구성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총 6장으로 편성되어 있는 회칙은 내용상 다시 관찰-반성-제안으로 세분화된다. ‘관찰’에 해당되는 1장과 2장은 ‘공동의 집’인 지구가 처한 적나라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 ‘반성’에 해당되는 3장과 4장은 생태 위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생태론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요청하고 있다. ‘제안’에 해당되는 5장과 6장은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장동훈, 2018: 193). 이러한 구성으로 볼 때, 『찬미받으소서』는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회람하는 것을 넘어 세 단계의 생태적 실천을 요청하는 회칙이기도 하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의 집이 처한 위기를 직시하고[관찰 단계], 다음으로, 생태 위기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성찰하고[반성 단계],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 것[제안 단계]을 강하게 권유하고 있다. 이러한 관찰-반성-제안의 과정은 곧 생태적 회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생태적 회개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이’에게 요구되지만, 『찬미받으소서』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이들에게 생태적 회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3)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5월 24일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를 인준, 같은 해 6월 18일 반포했다. 『찬미받으소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제 선정부터 집필, 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도한 첫 회칙이며, 교회 역사상 생태 문제를 언급한 최초의 회칙이라 할 수 있다. 2020년 5월 17일, 교황청은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을 맞아 ‘찬미받으소서 특별 주년’(2020.5. 24.~2021.5.24.)을 선포했고, 2021년에는 ‘찬미받으소서 행동플랫폼’을 출범시켰다.

4) 이하 『찬미받으소서』를 인용하는 경우, 회칙 명(名)을 생략하고 항만 표시하기로 한다.

있다.

신심이 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일부는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내세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우습게 여기고 있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일부는 수동적이어서 자신의 습관을 바꾸려는 결심을 하지 않고 일관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생태적 회개입니다(217항).

『찬미받으소서』는 교리만을 강조하고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에는 투신하지 않는 그리스도교인들에게 특히 생태적 회개를 요청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피조물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 피조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습관을 깊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생태적 회개는 “피조물들과의 화해”(218항)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생태적 회개는 피조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내적 변화와 피조물을 향한 참된 회개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피조물에 관한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피조물에 대한 새로운 상상과 해석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피조물은 창조 신학에 근거하여 신에 의해 창조된 모든 것을 일컫는다. 특히 인간을 포함한 동물 그리고 태양, 달, 물, 산, 흙과 같은 자연만이 피조물이라 여겨왔다. 그런데 『찬미받으소서』에서는 “물질세계 전체는 하느님의 사랑, 곧 우리에게 대한 무한한 자애를 나타낸다”(84항)고 하면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신의 창조 사업 안에서 저마다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 ‘하느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85항, 각주 55)이라고 한다면, 피조물인 인간과 동식물에서 나오는 배설물 또한 넓은 의미에서 ‘하느님의 것’에 속한다고 상상해 본다. 더욱이 권정생의 『강아지똥』 이야기처럼, 똥이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르침”(85항)으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즉 똥에 대한 물리적 성질을 넘어 ‘하느님의 것’으로 성찰할 때, 가장 하찮은 똥조차도 하느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인간에게 생태적 회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태적 회개는 피조물에 대한 연민을 일시적으로 혹은 일회적으로 배출시키는 감정이 아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피조물을 향한 착취의 욕망을 배설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순간은 인간의 말과 행위를 통해 끊임없이 상기되어야 한다. 버림의 순간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가톨릭의 고해성사라 할 수 있다.

2. 생태적 자기 고백의 행위, 고해성사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성사(聖事)를 “하느님께서 어떻게 자연을 받아들이시어 초자연적 생명을 전달해 주시는 수단으로 삼으시는지를 보여주는 특권적 방식”(235항)이라 규정한다. 이는

피조물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성사적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문구라 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환경운동에 대한 또 다른 대안으로 가톨릭 교회가 특히 신자들에게 성사적 삶을 권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회칙에서는 칠성사(七聖事)⁵⁾ 가운데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세례성사가 일생에 한 번 행해지는 일회적 성사라는 점, 성체성사는 칠성사 중에 가장 중요한 성사이기는 하나 의례[미사]를 하는 가운데 거행된다는 점에서, 두 성사 모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고해성사는 성체성사와 함께 수시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앙행위로서 신앙인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자발성이 요구된다. 일상에서 피조물에 대한 신의 계시를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고해성사의 시작인 것이다(하성용, 2009: 23-24).

교회는 전례력으로 참회의 날과 시기를 제정해 놓고 있지만 참회의 삶을 전례력의 시기를 넘어서서 신자들의 일상생활 안에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표출된다. 신앙의 삶은 주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기에 신자들은 하느님과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내적 참회의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 이러한 면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고해성사라는 성사적 측면으로 드러난다. 이는 회개와 참회가 죄의 고백과 사죄를 통한 전례적이고 성사적으로 교회의 삶 안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예정출, 2007: 249-250).

초대 교회(2-6세기) 시대에 고해성사는 대죄의 경우에만 청하였고, 세례성사와 마찬가지로 반복할 수 없는 일회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죄를 지은 사람은 임종까지 참회를 최대한 미루면서 개인적으로 하느님과 관계를 타협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기도 했다. 또한 죄에 대한 보속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각 개인의 내적 회개는 간과되기도 하였다. 당시 참회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공적으로 치러야 할 행위였다. 7세기 이후 고백자들이 자신들이 원할 때 고해성사를 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고해성사는 사적인 형태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1215년 라테란 공의회를 거치면서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보게 하는 의무가 생겨났다.⁶⁾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 이후에는 고해성사를 더 자주 볼 수 있도록, 대죄(大罪)뿐만 아니라 소죄(小罪)에 대한 고백도 포함시켰다.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며 사적인 속죄행위는 구원을 향한

5) 신앙의 관점에서 성사는 신앙을 전제하고 신앙을 기르고 굳건하게 하고 신앙을 드러내는 본질을 갖기 때문에 신앙의 성사들이라 할 수 있다. 성사는 그리스도인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사와 긴밀한 연관을 맺으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간다. 따라서 가톨릭에서 성사는 신앙의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삶이고, 인간 삶의 체험이며, 또한 구원에 대한 온전한 표지이다(해링, 1999: 212). 칠성사는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성사로 구분된다.

6)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보는 것은 길고 고통스러웠던 참회작업, 보속을 통한 벌과 속죄의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의 비유에서(길 잃은 어린양, 잃어버린 은화, 탕자) 볼 수 있는 영혼의 치유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송현섭, 1989: 31).

여정의 일부인 칠성사 중의 하나인 고해성사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신자들에게 정기적인 고백성사는 의무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송현섭, 1989: 27-33).

오늘날에도 가톨릭 신자들은 고해성사에 대한 편견이나 부담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죄 고백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고해성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고해성사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본고에서는 고해성사를 두 가지 관점에서 생태신학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고해성사(Sacramentum paenitentiae)의 어원적 의미이다. ‘참회’를 뜻하는 라틴어 Paenitentia는 그리스어 Metanoia의 번역이다. 메타노이아는 ‘정신세계’, ‘관념세계’를 가리키는 누스(nus)와 ‘함께’ 혹은 ‘뒤에, 후에’를 의미하는 메타(meta)의 합성어로서 문자적 의미로 ‘정신세계와 함께’를 뜻한다. 그래서 메타노이아에 상응하는 라틴어 단어는 Paenitentia라기보다는 오히려 conversio(회심)에 가깝다. conversio는 ‘돌아가다’라는 뜻인 vertere와 ‘함께’라는 의미인 com이 합쳐진 단어로서 ‘함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심은 ‘하느님의 정신세계와 함께 돌아가는 것’이 된다(송봉모, 1999: 95-97). 그렇다면 Paenitentia가 Metanoia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Paenitentia가 Metanoia에서 유래한다는 점에서, Paenitentia는 곧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 즉 ‘하느님의 정신과 함께 이루어지는 전인적 변화’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회개는 단순히 마음의 변화나 윤리적인 변화를 넘어 고백하는 사람의 내적 자세를 드러내는 단어인 것이다. 따라서 죄의 고백은 곧 하느님과 이웃,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자세나 사고방식을 바꿈으로써 속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찬미받으소서』에서 강조하는 생태적 회개는 “모든 사물의 공통 원천에 관한 성찰”(11항)을 통해 그 사물을 “단순히 이용하고 지배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 것을 거부”(11항)하고 “세상을 해결해야 할 문제 이상의 것으로, 감사와 찬미로 관상해야 하는 기쁜 신비”(12항)로 변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해성사에 내포된 자기 관찰과 자기 인식이다.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 고해성사의 제도화가 마련되고 고해성사를 보는 신자들의 수도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는 영적 성장보다는 여전히 죄의식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1700년대 기록은 제도화된 고해성사의 폐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사람들이 양심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도 않고 온다, 그들은 교회로 달려와서 고백성사의자로 막 몰려가고 제일 먼저 고백성사를 하겠다고 서로 주먹질까지 해댄다. [...]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웃어대고 얼마나 살기가 어렵고 얼마나 가난한지 이야기하고 잘못했다고 말들은 하지만 신부들이 죄를 지은 것을 비난하면 온갖 변명을 다 주워섬긴다. 그들은 이웃 사람을 헐뜯고, 이 세상 전체가 다 문제라고 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그들은 고해성사에서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것 한 가지만은 하지 않는다. 솔직하게 그리고 아픈 가슴으로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 그 한 가지 말이다(반 웰멘, 2005: 79).

양심 성찰이 없는 고해성사는 개인적 속죄행위의 폐해일 수 있다. 더구나 신자들이 고백신부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속죄를 하면 구원에 필요한 은총을 보장해 주는 속성으로 인해 종교개혁가들은 가톨릭의 고해성사를 통제의 수단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신자들의 죄를 사해 주는 사제들의 권한에 대해서도 강하게 공격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고해성사 제도만을 폐지했을 뿐 죄의 고백과 속죄행위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도 고해성사의 종교적 의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가들의 비판과 신자들의 불성실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의 고해성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만의 개인 문제나 공적인 문제를 ‘중립적인’ 사람과 의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반 뢰멘, 2005: 80)해 주었다.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해 거의 침묵하는 사회에서는 고백신부가 아주 은밀한 문제까지 도덕적인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 죄 지은 자에게 겁을 주고 신도에게 고백성사와 참회를 하도록 만든 것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 살려는 소망, 기독교인으로 합당하게 삶을 살겠다는 소망이었다(반 뢰멘, 2005: 83).

당시 가톨릭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는 매일의 일상 행동을 성찰하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결심하는 신앙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해성사에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 즉 자신에 대한 성찰을 말로 표현했다는 것은 양심적으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의무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개인적 고해성사는 죄의식과 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 자기 인식과 자기 확신을 강화시켜주는 제도였다. 그래서 역사학자인 뢰멘은 이러한 가톨릭의 고백성사를 “개인의 도덕화 과정을 촉진시켰고 그럼으로써 개인의 양심이 형성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반 뢰멘, 2005: 83)고 평가했다. 고해성사는 양심의 가책을 말로 표현하는 자발적 회개와 그리스도교적 삶에 대한 소명을 강화시켜 준 제도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가톨릭의 고해성사는 생태적 회개와 연결하여 새롭게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에 따르면, 피조물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마음을 바꾸는 경험’이 필요하다.⁷⁾ 그런데 신자들이 생태 문제에 대해 얼마나 자주 깊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일상에서 어떻게 생태적 실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교회는 생태적 회개를 개인의 양심에만 맡기고 있는 듯 보인다. 생태적 회개가 중요한 시대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해성사가 생태적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발적 회개의 장(場)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톨릭 신자라면 자발적으로 고해신부에게 찾아가 피조물에 대한 죄를 자신의 말로 고백하고 통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고해성사를 통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때, 생태적 회개는 ‘하느님의 정신’과 함께 모든 사물과

7) “이러한 화해를 이루려면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우리의 행위와 방관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의 피조물에 해를 끼쳐 왔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 곧 마음을 바꾸는 경험이 필요합니다”(218항).

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피조물들과 화해하는 내적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 즉 생태적 고백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피조물을 향한 욕망을 배설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고해성사는 그 배설의 순간을 생태적 자기 고백을 통해 확인하고, 나아가 피조물과 화해를 통해 관계를 재정립하는 되살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III. 고해성사의 창발적 되살림

1. 생태적 속죄 행위, 보속

일반적으로 고해성사는 사죄라고 하는 성사 집행자의 행위와 고백자의 세 가지 행위, 즉 고백자의 죄의 고백, 통회, 그리고 보속으로 구분된다(세네, 1987: 35). 시대에 따라 부과된 보속은 다양하게 변천해왔다. 초기 교회 시대에 부과된 보속은 참회 기간 동안의 금식, 금욕, 금주, 자루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또는 전례 중에 다른 이들에게 기도를 청하기 등이었다. 고해자들은 이 보속을 엄격하게 지켜야 했다. 보속 실천의 어려움은 많은 신자들의 양심성찰을 무디게 했고, 참회성사의 참여 의지를 저하시켰다(송현섭, 1989: 27-28). 중세시대에도 보속이 과중하여 고해자들은 보속을 돈으로 해결하거나 보속을 대신해 줄 사람을 구하기도 하였다(송현섭, 1989: 30-31). 이처럼 보속이 변칙 적용되자, 트리엔트 공의회 때 보속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참회성사 때의 보속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죄는 보상해야 할 요소로서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기워 갚아야 할 벌이며, 사죄로써 사해진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보속은 지은 죄에 대한 보복 혹은 벌일 것이며, 다른 하나의 목적은 죄가 영혼 안에 심어준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고, 장래에 죄인들이 더욱 조심하도록 하는 수단이다(송현섭, 1989: 33).

오늘날에는 고해사제가 죄의 경중과 고해자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속을 주고 있다. 보속에는 일반적으로 기도, 헌금, 자선 행위, 이웃을 위한 봉사, 절제나 희생 등이 있다. 또한 고해자가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보속을 정하여 고해사제에게 제안할 수도 있다(손희송, 2007: 49). 보속을 고해사제가 정해주기도 하지만, 고해자 자신이 스스로 제안할 수 있다는 점은 보속이 단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수동적 보상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보속의 의미를 ‘죄가 영혼 안에 심어준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고, 장래에 죄인들이 더욱 조심하도록 하는 수단’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가톨릭 교회는 보속이 사제가 정해 준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헤링, 2007: 49).

‘장래에 더욱 조심하도록 하는 적극적 수단’으로 보속의 의미를 재고찰해야 하는 이유는 피조물에 가한 인간의 폭력과 착취를 말로만 통회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공동의 집’에 끼친 해악을 갚기 위해서는 고해성사 때 받은 생태적 보속으로 ‘되살림’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에서 배포한 『기후 변화 극복을 위한 ‘하늘땅물벗’ 본당 활동 안내서』(이하 본당 활동 안내서)⁸⁾의 내용을 하나의 사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기후 변화 극복을 위한 ‘하늘땅물벗’ 본당 활동 안내서』 목차

<Table 1> A Guide to riends of ‘Heaven, Earth, and Water’(FHEW) Church Activities to Overcome Climate Change Contents

1. 본 안내서에 대하여	4. 본당 신자 교육
2.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4.1 하느님의 창조보전에 관한 영성 교육
3. 본당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4.2 기후 친화적인 생활양식에 관한 교육 자료
3.1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4.3 가정 탄소발자국이란
3.2 에너지 낭비 없애기	4.4 가톨릭 학교 및 성인 교육 프로그램
3.3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4.5 신자들의 실천
3.4 에너지 절약 기술에 투자	5. 지지와 연대
3.5 재생 에너지로 전환	5.1 강력한 세계 기후 정책의 지지
3.6 그 외의 에너지 절약	5.2 기후 변화의 희생자들과 연대하기
	5.3 기후 변화 적응과 복원력 구축

『본당 활동 안내서』는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정신과 내용을 각 교회에서 또는 신자들이 어떻게 각자의 생활 안에서 구현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천주교 서울대교구 하늘땅물벗, 2019: 9). 특히 『본당 활동 안내서』는 위의 목차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 상황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교회 건물로 리모델링 하기, 교회 차량을 소형이나 전기자동차로 교체하기, 교회 내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기, 교회에 태양열과 같은 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하기 등을 실제 적용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각 신자들의 생태적 회개를 촉진하는 교회 차원의 생태영성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각 가정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 교회가 신앙을 바탕으로 공동

8)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는 세계적인 가톨릭 환경운동 단체인 ‘가톨릭기후행동’(GCCM, Global Catholic Climate Movement)이 전 세계교회, 특히 본당 단위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펴낸 지침서를 번역하고, 한국 교회 사정에 맞게 편집하고 국내 사례를 보완하여 2019년 『기후 변화 극복을 위한 ‘하늘땅물벗’ 본당 활동 안내서』를 펴냈다.

선을 지향하며 환경 운동 및 구호 단체들과 연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이’가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회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당 활동 안내서』를 통해 생태적 실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버림과 되살림’을 위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저탄소 녹색 교회’를 지향하며 각 본당에서 적극적으로 생태적 운동을 펼치고 있는 평신도 단체인 ‘하늘땅물벗’의 활동은 앞으로 매우 기대된다.

『본당 활동 안내서』는 ‘신자들이 교회 지도자들과의 일치 안에서 프로젝트 및 활동을 추진하고, 그 활동의 결과를 평가하고, 다시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고’할 것을 제안한다. 그런데 이러한 위로부터의 생태운동은 각 지도자들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부침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당 활동 안내서』에 제시된 실천 항목 가운데에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해 왔던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아나바나 벼룩시장’, ‘도농간 직거래를 통한 먹거리 나눔 활동’, ‘폐식용유를 모아 비누 만들기’, ‘육류 소비 줄이기’, ‘겨울철 내복 입기’, ‘부채 사용하기’, ‘전구 한 등 끄기’, ‘분리수거 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이 있다. 이 실천 항목은 생태운동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항상 언급되어져 왔던 것들이다. 생태 위기가 더욱 악화된 상황 속에서 예전과 같은 실천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운동들이 생태적 실천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생태 위기라는 거대한 재난 앞에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때로는 너무나도 미약하게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가계의 소비를 조금 줄인다거나 전구를 절약형 형광등으로 바꾼다거나 해도, 그것이 결코 큰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들어요(러미스, 신이치, 2010: 146).

결국 개인이 생태적 실천을 하면서 경험하는 무력감은 자신의 작은 행동과 커다란 문제를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생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많은 다큐멘터리는 줄곧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공포를 준 뒤,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소한 실천 목록을 제시하고 마무리한다. 이는 문제의 거대함과 실천 행위의 왜소함 사이의 충격만 남길 뿐, 오히려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을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구를 절약형으로, 형광등을 LED로 바꾸는 것’과 같은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이상의 모색이 필요하다. 즉 ‘하나를 없애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은 ‘쓸모없다고 치부한 것들을 재발견할 수 있는 안목’과 ‘쓸모없는 것들을 되살리기 위한 생태학적 상상력’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텃밭 가꾸기’, ‘게릴라 가드닝’, ‘녹색 게릴라’ 등의 ‘농적(農的) 생활하기’가 있다(러미스, 신이치, 2010: 146-147). 농적 생활은 농경 생활로의 복고(復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활동에서 생산적 활동으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먹을 것, 볼 것을 스스로 생산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명의 순환을 스스로 경험하는 농적(農的) 생활로의 부활인 것이다. 농적 생활은 현대인들이 대도시 기반시설에 빌붙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는 지역을 재발견하고, 자신을 둘러싼 사물과 주체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 인구의 50%가 도시에 살고 있고, 2050년에는 7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도시 농업은 농적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맥도나, 2017: 189).

이제 보속의 의미를 이러한 농적 생활과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면, 생태적 회개에 따른 생태적 보속은 ‘~하지 않기’, ‘~ 줄이기’와 같은 소극적인 실천을 넘어 피조물과의 화해를 위한 방법을 스스로 찾는 ‘~하기’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속으로 주어지는 ‘기도, 헌금, 자선행위, 이웃을 위한 봉사, 절제나 희생’을 피조물과의 화해를 위한 도구로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스스로 제한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생태적 보속을 생산적 활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발상의 전환도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그 예로 ‘걷기 순례’를 제안하고자 한다. 가톨릭 신자들에게 익숙한 순례를 재발견함으로써, ‘걷기’와 ‘순례’가 어떻게 ‘창발적 되살림’으로서의 생태적 보속이 될 수 있는지 다음 장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걷기 순례를 통한 생태적 보속과 공동체적 되살림

그리스도교에서 순례는 하느님과 관련된 성스러운 땅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 회개, 보속, 감사 등의 경신(敬神)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순례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적극적 믿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순례는 신자들의 신앙생활 쇄신과 내적 변화에 영향을 주며 꾸준히 발전해 왔다. 순례는 신에 대한 흠숭, 성인에 대한 존경의 의미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행위로도 인식되었기 때문에, 신자들은 순례를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자 하였다(Müller, 2006: 426-427). 이때 회개를 위한 순례는 개별적 처벌이었다. 8세기 이후부터 순례는 신자들의 의무에 속한다는 관습이 생겨나 순례단이 조직되기도 하였는데, 이때 회개를 위한 공적인 순례와 사적인 순례가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13세기가 되면서 참회를 위한 순례는 세 가지의 형태, 즉 주교에 의해 부과된 공적 고해, 어느 교구의 성직자나 명령할 수 있는 비교적 덜 엄격한 고해, 숨겨진 죄에 대한 개개인 스스로 행하던 고행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순례길에 오른 자들 가운데 도둑질, 폭력행위, 간음, 살인 등을 저지른 범법자에게는 그 범행의 정도에 따라 순례의 거리나 어려움을 계산해 순례를 강제 집행하기도 하였다(이광주, 1992: 130-133). 중세시대에 순례는 신자들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통과 의례로서 육체적 고행을 감수하며 그리스도의 수난을 추체험하는 ‘고행’이자 영적인 단련을 하는 참회 행위였다.⁹⁾ 나아

9) 순례자는 가난해야 했고 죽기를 각오해야 했다. 그래서 순례자는 출발하기에 앞서 유언을 썼고, 출발 직전에 미사와 고해성사를 치르고 축복을 받으며 순례길에 올랐다. 예를 들어,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보속의 행위이기도 했다.

평원 저 끝 17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샤르트르 대성당의 종탑이 보인다. 때때로 종탑은 굽이치는 언덕, 숲의 곡선 뒤로 사라져버린다. 내 눈에 그 종탑이 보이자마자 나는 황홀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다. 더 이상 피곤도 다리 아픈 것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불순한 것이 단번에 떨어져나갔다. 나는 판사람이 되었다(르 브르통: 236).

무엇보다도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순례자들은 목적지까지 자신의 두 발로 걸어야 했다. 심지어 어떤 순례자는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 혹은 죄의 대가로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걸었다. 사회학자인 브르통은 당시 순례자의 걷기 행위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순례자란 무엇보다 먼저 발로 걷는 사람, 나그네를 뜻한다. 그는 여러 주일, 여러 달 동안 제집을 떠나 자기 버림과 스스로에게 자발적으로 부과한 시련을 통해서 속죄하고 어떤 장소의 위력에 접근함으로써 거듭나고자 한다. 이러한 순례는 신에 대한 항구적인 몸바침이며 육체를 통하여 드리는 기나긴 기도다(르 브르통, 2000: 232).

과거 그리스도교인들이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순례를 걸어서 떠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영적 변화를 갈망하면서 걷고 또 걷는다. 그 대표적인 예로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 있다. 2018년 9월 14일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4년여 동안 준비하여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아시아 최초의 교황청 공식 국제 순례지로 선포했다. ‘천주교 서울 순례길’은 세 개의 코스, 즉 1코스 말씀의 길(8.7km, 도보 약 3시간 소요), 2코스 생명의 길(5.9km, 도보 약 2시간 30분), 3코스 일치의 길(29.5km, 도보 약 8시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2020년에는 김대건 신부 치명 순례길(12.7km, 도보 약 4-5시간)이 포함됐다. 각각의 코스에 거리와 도보 소요 시간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걸어서 순례의 여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걷기’는 순례 여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걷기는 세계를 온전하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인간 자신의 내면의 길을 찾아가게 한다. 걷기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불편함은 오히려 “그 무시무시한 괴로움의 씨앗이 아니라 자기 변신, 자기 버림의 요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길과 몸을 한덩어리로 만드는 연금술을 발견해야 한다는 요청”(르 브르통, 2000: 253)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걷기 순례를 한다는 것은 고해성사 때 고백했었던 버림[배설]의 순간을 기억하고, 피조물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되살림의 시간을 길 위

재산을 수도원에 기부한 뒤 순례길에 올랐고, 죽기를 각오했으나 살아서 돌아온 뒤에는 수도사가 되었다. 빛이 있는 자는 모두 짚고, 도둑질한 자는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떠났다(이광주, 1992: 131).

에서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불편함 속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을 재발견하고, 자신을 둘러싼 사물과 화해와 일치의 길을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걷기 순례는 통합적 생태론에 기반한 생태적 보속으로 확장될 수 있다.

‘천주교 서울 순례길’처럼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순례길은 대도시, 혹은 중소 도시가 연결된 곳에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순례길의 환경적 조건은 순례자들에게 도시를 탈출하여 자연 속에서 걸으며 성찰하는 것이 생태적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오히려 도시의 길 위에서 환경의 위기와 사회 위기를 직면하고, 그 해결책으로 “소외된 인간의 존엄 회복과 동시에 자연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접근”(139항)을 시도하는 것이 생태적 회개에 따른 생태적 보속인 것이다.

회칙 『찬미받으소서』는 그리스도교의 영성이 “소비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언적이고 관상적인 생활 방식”(222항)임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성적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 마련해 주는 기회들을 거부할 생각은 전혀 없다.”(112항)고 하면서 과학기술이 “좀 더 건전하고 인간적이고 사회적이며 온전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걷기 순례 또한 신자들만의 종교적 고해인 생태적 보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생태적 보속을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좀 더 인간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발적 되살림’으로 상상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예가 5~6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스마트폰 ‘걷기 리워드 앱’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건강을 위해 허리에 찼던 만보기는 이미 사라졌지만 기능은 GPS나 내장 센서를 탑재한 스마트폰으로 옮겨져 칼로리 소모량 계산, 수면 패턴 분석 등 이전보다 훨씬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 가운데 소위 ‘걷기 리워드 앱’은 걷기를 통해 건강뿐만 아니라 금전적 보상과 선행의 보람까지 챙길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 특히 걸을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현대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보상형 걷기 리워드 앱’을 이용하면 걷는 만큼 돈이 쌓여 동기 부여가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소소한 금전적 보상을 선행 영향력으로 활용한 앱이 ‘기부형 걷기 리워드 앱’이다. 이는 기부 캠페인에 나선 기업과 비영리단체와 기부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기부 서비스 앱으로, 사용자의 걸음 수가 캠페인 목표 걸음을 달성하면 이를 기부금으로 전환해 기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¹⁰⁾ ‘기부형 걷기 리워드 앱’은 걸음 기부 캠페인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과 홍보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기부자들에게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미션을 부여받음으로써 소액이라도 재

10) 대표적인 ‘기부형 걷기 리워드 앱’으로 ‘빅워크’가 있다. 빅워크 사용자 수는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지금까지 298개의 기관이 참여해 85만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663억 걸음, 거리로 환산하면 약 4300만km를 달성하였으며 누적 약 70억의 기부금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아모레퍼시픽은 ‘펫츠워크’ 앱을 통해 걸음 수를 적립하고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면 동물자유연대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참여자들에게는 뷰티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Nanum Kyeongje News, 2021.02.17.).

미있고 의미있게 기부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기부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보상형 걷기 리워드 앱’은 걷기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예를 보여주는 전형이라 있다.

‘보상형 걷기 리워드 앱’의 사례를 살펴보면 ‘걷기 순례 마일리지’앱이 개발되어 순례에서 걷기 행위가 개인적 차원에서 버림[배설]을 창조적으로 되살리는 생태적 보속의 의미를 갖는 동시에 자신의 걸음 수가 기부로까지 이어지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순례자의 걸음이 힘 있는 이익 집단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에 희생되는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는데, 생태계 파괴 현장을 보면서 피조물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자신을 성찰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걸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하는 것은 분명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V. 나가며: 새로운 상상의 실현을 고대하며

두 개의 이야기가 있다. 하나는 지리산 배터재에 꼭꼭 숨어있는 곳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은둔소는 에너지 제로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전기는 태양광으로, 온수는 태양열로, 조명은 자연채광으로, 식수는 겨울엔 계곡물을, 다른 계절엔 지표수를 자연 정화시켜 사용한다. 농사에 필요한 퇴비는 낙엽과 음식물 찌꺼기, 생태화장실에서 나오는 인분을 발효시켜 이용한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과 형제애를 나누며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일대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으로 철도가 끊어진다. 그런데 저 멀리 기차가 달려오고 있다. 수 만명이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 속에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끊어진 철도 위에 엎드린다. 무사히 기차가 지나가고, 그 남자는 위기에 처한 또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재빠르게 사라진다.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4월 문학평론가이자 생태사상가인 김종철은 자신의 마지막 칼럼에서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역병이 창궐할 때마다 백신과 치료제를 찾느라고 허둥댈 것인가. (...) 우리를 구제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마스크도 손씻기도 아니다. 또, 장기적인 고립생활이 면역력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공생의 윤리를 부정하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면역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탐욕이라는 바이러스다.”(김종철, 2020.04.16.). 이는 코로나19 발생 원인을 인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즉 욕망에서 찾아야 함을 역설한 종교적, 철학적 진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욕망이 더러움의 근원이라 보고, 그 욕망에 대한 자기 자신의

성찰과 회개를 강조한 종교는 바로 그리스도교라 할 수 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에 비해 정결 예식이 발달하지 않은 그리스도교는 대신 정결의 의미를 인간의 내면에서 찾았다. 물론 불교에도 ‘포살’(布薩, uposatha)이라고 하여 정결한 신심을 갖추기 위한 청정예식이 있으나 출가자의 포살과 달리 재가불자의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회개와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가톨릭의 경우, 고해성사는 오랜 역사 속에서 욕망의 버림[배설]을 정기적으로 상기 시켜주는 종교 의례로 발전해왔다. 오늘날 생태 위기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고해성사는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충분히 고찰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교의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를 통해 알려진 ‘생태적 회개’ 개념을 구체화 시키는 데 있어 고해성사는 간과될 수 없는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해성사를 ‘생태적 회개, 생태적 자기 고백, 그리고 생태적 보속’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이로써 회개와 고해성사가 욕망의 버림[배설]과 되살림의 과정이었음을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신학적, 역사적 관점을 통해 살펴보고 재해석하였다. 나아가 고해성사의 보속 개념을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생태적 보속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여러 보속 중의 하나였던 순례를 생태적 보속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새롭게 상상해 보았다.

2021년 5월 24일,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정신에 따라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하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개막 미사를 공동집전하였다. 이후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생태 보호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는 피케탕이 진행되었고, 현재 ‘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생태 피정과 기도 모임’, ‘생태영성의 심화와 교육’ 등 다채로운 행사 또한 계획 중에 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시작하며 생태적 삶이란 무엇인지 자문해 본다.

다시, 앞서 언급한 두 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첫 번째 이야기는 ‘작은형제회 한국 관구 약양 라 베르나 수도원’의 생활인데, 이는 현대인이 바라는 이상적인 생태적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의 10명 중 9명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재난이라는 위기 앞에서 자신이 먼저 실천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두 번째 ‘슈퍼맨’ 이야기가 더 절실하게 다가온다. 즉 생태 위기 앞에서 슈퍼맨이 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끊어진 철로를 잇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철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열 마디의 말이 아니라 피조물을 향해 그리고 피조물과 함께 생태적 실천을 하고자 하는 생태적 자기 고백이다. 회칙 『찬미받으소서』 마지막 부분은 그 배설과 되살림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 고백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느님을 찾아 이 땅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 노래하며 걸어갑니다! 이 지구를 위한 우리의 투쟁과 염려가 결코 우리 희망의 기쁨을 앗아 가지 못합니다(244항).

References

- 권정생 글 (2006). 정승각 그림, 『강아지똥』. 파주: 길벗어린이.
(Translated in English) Kwon, C. S. (2006). *Doggy Poo(Kangaji ttong)*, Paju: Gilbutkid.
- 김종철 (1999). 『시적인간과 생태적 인간』. 서울: 삼인.
(Translated in English) Kim, J. Ch. (1999). *The Poetic Human and the Ecological Human*, Seoul: Samin.
- 더글러스 러미스, 쓰지 신이치 (2010). 김경인 옮김, 『에콜로지와 평화의 교차점』. 서울: 녹색평론사.
(Translated in English) Lummis, D., Tsuji, Sh., (2010). *The Intersection of Ecology and Peace*, Seoul: Greenreview Publishing.
- 다비드 르 브르통 (2000). 김화영 옮김, 『걷기예찬』. 서울: 현대문학.
(Translated in English) Le Breton, D. (2000). *The Praise of walking*, Seoul: Hyundae Munhak.
- 리하르트 반 뢰덴 (2005). 최윤영 옮김, 『개인의 발견』. 서울: 현실문화연구.
(Translated in English) Van Dülmen, R. (1997). *The Discovery of the Individual*, Seoul: Hyunsil Cultural Studies.
- 손희송 (2007). 『성사론』. 서울: 가톨릭교리신학원.
(Translated in English) Son, H. S. (2007). *The theory of Sacraments*, Seoul: Catholic Catechetical Institute.
- 손 맥도나 (2017). 이정규 옮김, 『공동의 집: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와 정의에 관한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왜관: 분도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McDonagh, S. (2017). *On Care for Our Common Home Laudato Si': The Encyclical of Pope Francis on the Envionronment with Commentary*, Waegwan: Benedict Press.
- 송봉모 (1999). 『회심하는 인간』. 서울: 바오로딸.
(Translated in English) Song, B. M. (1999). *The Converted Human*, Seoul: St. Pauline.
- 야콥 블루메 (2005). 박정미 옮김, 『화장실의 역사』. 서울: 이룸.
(Translated in English) Blume, J. (2005). *A History of Toilet*, Seoul: Erum.
- 이광주 (1992). 『유럽 사회 - 풍속 산책』. 서울: 까치.
(Translated in English) Lee, K. J. (1992). *A Walk in Europe - A Walk in Customs*, Seoul: Kachi.
- 프란치스코 교황 (2015). 『찬미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Translated in English) Pope Francis (2015) *Laudato Si' (Praise Be to You): The encyclical on care*

- for our common home*, Seoul: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 B. 헤링 (1991). 성염 옮김, 『고해의 기쁨』. 서울: 성바오로.
- (Translated in English) Häring, B. (1991). *A Happy Confession*, Seoul: St. Pauline.
- 천주교 서울대교구 하늘땅물벗 (2019). 『기후 변화 극복을 위한 ‘하늘땅물벗’ 본당활동안내서』. 서울: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 (Translated in English) Friends of Heaven, Earth, and Water(FHEW) at Archdiocese of Seoul, (2019). *A Guide to riends of 'Heaven, Earth, and Water'(FHEW) Church Activities to Overcome Climate Change*, Seoul: Environment Pastoral Committee at Archdiocese of Seoul.
- Kim, J. Ch. (2020.04.16.). Corona tribulation, civilization at a crossroads, *The Hankyoreh*, Retrieved November 21, 2021, from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37411.html>.
- Ha, S. Y. (2009). A study, according to the code of the Canon law after Second Vatican Council, of the confession in the teaching of Church,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Häring, B. (1999). A Sacrament of Confession,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28, 209-235.
- Jang, D. H. (2018). The historical origin and meaning of the Encyclical Laudato Si', *World and Word*, 42, 189-218.
- Müller(Hrsg.), G. (2006). Wallfahrt/Wallfahrtswesen,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Bd. 35, Berlin: Walter de Gruyter.
- Sagne, J. C. (1987). Christian Repentance, *Theological Perspective*, 77, 29-39.
- Song, H. S. (1989). A Forgiveness of sins and confession, *Theological Perspective*, 87, 20-43.
- Kim, J. Ch. (2020.04.16.). Corona tribulation, civilization at a crossroads, *The Hankyoreh*, Retrieved November 21, 2021, from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37411.html>.
- Ye, J. Ch. (2007). The Canon Law on the Sacrament of Confession, *faith and life*, 15. 249-254.
- Archdiocese of Seoul. "Seoul Catholic Pilgrimage Route". Retrieved November 21, 2021, from Homepage https://martyrs.or.kr/_web/mpilgrims/about.html
- Nanum Kyeongje News (2021.02.17.). "Walking Donation", Retrieved November 21, 2021, from <http://nanumy.co.kr/View.aspx?No=1498557>.